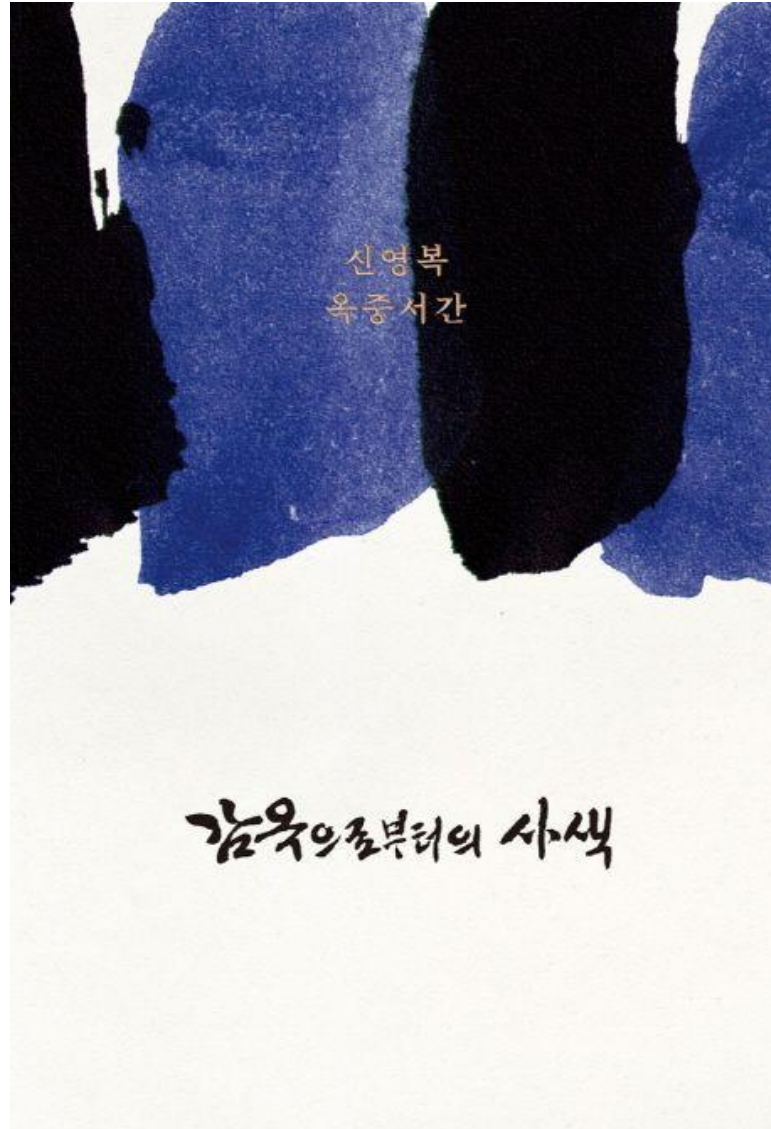


책 소개

2024. 11. 26. 화

김광호 선생님

- 도서명 :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 저자 : 신영복



- 1941년, 경상남도 의령군 출생
- 1963년,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 1965년, 서울대 경제학과 석사
- 1965년, 숙명여대/육군사관학교 경제학 강사
- 1966년, 육군사관학교 교수사관 중위 임관
-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
- 1988년, 8.15 특별 가석방으로 출소
- 1988~2006년,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 2006~2014년,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석좌교수

- 사형선고, 무기징역, 1988년 특별 가석방 20년 20일
- 초간 + 감옥 화장지(똥종이) '청구회 추억' + 부모님께, 형/형수님께, 동생/계수님께 등 가족들에게 보낸 엽서
→ 개정 증보판

종횡님께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의 우리들은 없이 살기는 더합니다만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여름지역의 열까지 스무가지 장점을
일시에 무색케 해버리는 결정적인 사실. — 여름지역은
자기의 바로 옆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로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사람을 단지
37°C의 열 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옆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겨울철의
원시적 부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중의 형벌입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사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미움받는다는 사실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더하기 그 미움의 원인이 자신의
고의적인 劣行에서 연유된 것이 아니고 자신의 存在 자체가
대문이라는 사실은 그 불행을 매우 절망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이
이성적으로 옳게 파악되지 못하고 말초감각에 의하여 그릇되게
파악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증오의 감정과 대상을
바로 잡지 못하고 있다는 자기혐오에 있습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하여 키우는 "부당한 증오"는 비단
여름잠자리에만 고유한 것이 아니라 없이 사는 사람들의 생활
도처에서 발견됩니다. 이를 두고 성급한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의
도덕성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탓하려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온다 온다 하던 비한줄
내리고 나면 꽃밭도 더는 버티지 못할 줄 알고 있으며, 머저림아
朝夕의 秋涼은 우리들끼리 서로 키워왔던 불행한 증오를 서서히
거두어가고, 그 상처의 자리에서 이웃들의 "따뜻한 가슴"을
깨닫게 해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秋火처럼 정갈하고 냉정한 恨恨을 일깨워 줄
것임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x

x

多事했던 休식1週日의 일들도 이 여름이 지나고 나면 아바
한장의 명함판 사진으로 정리되리라 믿습니다. 변함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동생들께도 안부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8월 28 작은 형님

기음저림

기음으로 한들을 만나는 여정새처럼, 기음으로 대상을 보는 새처럼
우리는 한류가 정화한 중도계절에서도 마치 아침처럼 새롭고, 하류처럼
언제나 새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호남도 서지

■ 청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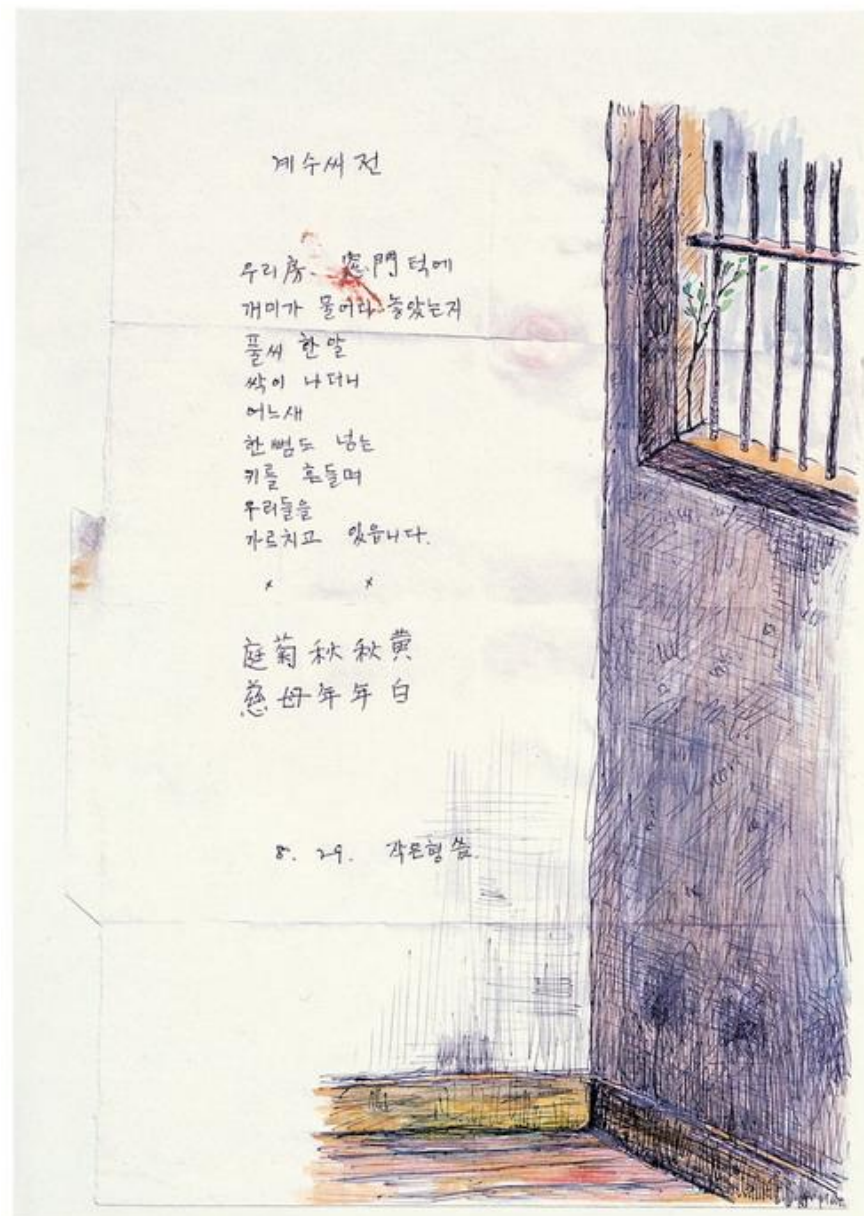
- 1966년 봄철 서울대학교 문학회 초청 서오릉 소풍길에서 만난 초등학교 6명과의 친분
-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6시, 장충체육관
- 1968년 7월 구속되기전까지 만남 유지
- 10원x 6명 + 40원 = 100원, 회비 저금
- 골목청소, 겨울철 미끄러운 길 정리, 독서가 제일 중요한 일

■ 서도의 관계론(아버님께)

- 획의 성패란 획 그 자체에 있지 않고 획과 획의 '관계' 속에 있다
- 행의 잘못은 다른 행의 배려로, 연의 실수는 다른 연의 구성으로 감싼다
- 묵과 여백, 흑과 백의 조화, 상호연계와 통일 질적 향상

■ 옥창의 풀씨 한 알 (계수님께)

우리방 창 문턱에
개미가 물어다 놓았는지
풀씨 한 알
싹이 나더니
어느새
한 뼘도 넘는
키를 흔들며
우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 작은 실패(형수님께)

- 작은 실패가 있는 쪽이 없는 쪽보다 길게 보아 나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 왜냐하면 작은 실패가 있음으로 해서 전체의 국면은 '완결'이 아니라 '미완'에 머물고 이 미완은 더 높은 단계를 향한 새로운 출발이 되어 줍니다.

■ 욕설의 리얼리즘(계수님께)

- 욕설은 비상한 감정이 인내력의 한계를 넘어 밖으로 돌출하는 불만이나 스트레스의 가장 싸고 '후진' 해소방법이다
- 사과가 먼저 있고 사과라는 말이 나중에 생기듯이 욕설로 표현될 만한 감정이나 대상이 먼저 있음이 사실이다.
- 역설은 대체로 높은 단계인 '사건' 또는 '사태'의 개념화이며 예술적 형상화 작업, 고도의 의식활동

■ 비슷한 얼굴(계수님께)

- 아무리 담장을 높이더라도 사람들은 결국 서로가 서로의 일부가 되어 함께 햇빛을 나누며, 함께 비를 맞으며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 한 그루의 나무가 되라고 한다면 나는 산봉우리의 낙랑장송보다 수많은 나무들이 합창하는 숲 속에 서고 싶습니다.
- 한 알의 물방울이 되라고 한다면 단연 바다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 https://youtu.be/8o37ZEZUMMc?si=tl6_MsNZf9jLE6Sm